

11월 4일 ~ 10일

# 재미로 보는 운세



36년생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풀린다. 48년생 쉬 수 있을 때 쉬 어두어야 한다. 60년생 서두르지 말고 한 박자 쉬어야 한다. 72년생 주변의 인맥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큰 도움을 받는다. 84년생 다른 사람의 말은 반만 믿으면 정확하다. 96년생 나를 위해 노력해주는 사람을 위해 충분히 마음을 표현해라.



37년생 현재에 충실해라. 49년생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라. 61년생 진심은 언제나 통하니 솔직한 모습으로 대해야 한다. 73년생 본인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일을 해야 무리가 생기지 않는다. 85년생 노력하지 않는 일이 성취가 될 리 없다. 97년생 호기심이 지나치면 독이 될 수 있다.



38년생 편법이나 불법을 저지르면 결국에는 밝혀진다. 50년생 잘못된 일이라면 시작을 하지 말아야 한다. 62년생 지금은 변화를 할 때가 아니니 주어진 일에 충실해라. 74년생 십 년 공부가 드디어 빛을 발하는 시기이니 인정받는다. 86년생 기다리던 소식이 들려온다. 98년생 누군가를 위해 일을 할 때는 자신의 감정은 배제해라.



39년생 다른 사람의 일에 관심을 기울여서 좋을 것이 없겠다. 51년생 여유가 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을 도와준다면 훗날에 큰 덕을 보게 된다. 63년생 기회는 아무 때나 오는 것이 아니다. 75년생 원행을 할 일이 생기는데 동쪽이나 남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87년생 가만히 있어서는 일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40년생 생각지도 않았던 재물이 들어오니 한결 생활이 윤택해진다. 52년생 나의 주변으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들게 되니 명예가 올라간다. 64년생 좋은 아이디어는 타인과 공유하지 않는 것이 좋다. 76년생 타인의 비판이 있어도 겸허히 수용해라. 88년생 자신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시기이다.



41년생 재물을 써야만 재물이 들어온다. 53년생 주변 사람과 힘을 합쳐서 움직인다면 일이 쉽게 풀어지게 된다. 65년생 모험을 두려워하면 항상 현재에 머무를 뿐이니 도전정신을 가져야 한다. 77년생 운전을 해야 한다면 각별히 신경을 써야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89년생 재물로 인한 일에서는 당장의 이득은 생각지 말라.



42년생 선물리 움직이기보다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야 한다. 54년생 남의 것에 욕심을 내기보다는 현재에 감사하라. 66년생 몇 폰의 이익 때문에 신의를 저버리는 것은 어리석다. 78년생 현재 어렵다고 해도 참으면 좋은 결과를 볼 수 있게 된다. 90년생 일단 자신의 주변을 살펴봐야 한다. 그 후 할 일이 기억날 것이다.



43년생 모든 일은 순리대로 흘러갈 것이니 초조해하지 말고 기다려라. 55년생 타인의 도움을 바라기보다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다. 67년생 술을 마실 일이 있다면 지나치지 않게 적당히 조절해야 한다. 79년생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말고 적당한 요령이 필요하다. 91년생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다.



44년생 여유가 있다면 베풀어라. 당장이 아니라도 반드시 크게 돌아온다. 56년생 이미 지난 일은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빨리 잊어버리는 것이 현명하다. 68년생 자기 관리에 철저하지 않으면 체면이 깎일 수도 있으니 신중해라. 80년생 작은 일에 연연하지 말고 큰 뜻을 품어야 한다. 92년생 실수가 나쁜 것이 아니다.



45년생 큰 재물을 얻을 수이다. 57년생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도와주는 사람이 생기니 과감하게 밀어붙여라. 69년생 기회는 오래 머무르지 않으니 너무 오래 생각하면 놓치게 된다. 81년생 경쟁자와의 다툼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93년생 다른 사람과의 경쟁이 행운을 불러온다.



46년생 나가는 돈을 아까워하지 말고 투자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 58년생 지금은 아랫사람을 들일 필요가 없으니 나중으로 미루는 것이 좋겠다. 70년생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는 것이다. 82년생 너무 일에만 열중하는 것도 좋지 않으니 때로는 즐기는 것이 좋다. 94년생 조용히 있는 것이 때로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47년생 조금 불편하더라도 참고 견디면 아무 일도 없지만 변화하면 흥하다. 59년생 사소한 것이라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면 행하지 말라. 71년생 때로는 잠시 쉬는 것도 좋으니 애써서 무엇인가를 할 필요는 없다. 83년생 고생한 보람이 생기니 일이 더디게 진행되어도 참아야 한다. 95년생 가장 잘 하는 일만 하려고 하지 말라.

제공 : 당신의 멘토, 운조아

## 주간 일기예보

출처:네이버 날씨

10월 31일 목요일



11월 1일 금요일



11월 2일 토요일



11월 3일 일요일



11월 4일 월요일



11월 5일 화요일



## 시사상식 소비기한

☞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건강상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소비자가 실제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말한다. 국회가 2021년 7월 기존의 식품 유통기한 표시제를 소비기한 표시제로 2023년 1월 1일부터 변경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식품이 제조되어 유통과정을 거쳐 소비자에게 전달된 후, 소비자가 소비해도 건강이나 안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소비 최종시한을 말한다. 소비기한은 식품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을 뜻하는 '유통기한' 보다 더 길다. 즉, 소비기한은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로 식품의 맛·품질 등이 급격히 변하는 시점을 설정실험 등으로 산출한 품질안전 한계기간의 80~90%로 설정한 것이고, 유통기한은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로 품질안전한계기간의 60~70%로 설정한 것이다.

한편, 소비기한과 유통기한 외에도 식품의 품질이 전혀 바뀌지 않는 기한을 뜻하는 품질유지기한과 식품 섭취가 가능한 최종기한을 뜻하는 종료기한도 있다.

### ▶소비기한의 도입

소비자가 유통기한을 식품의 폐기시점으로 인식하거나, 일정기간 경과 제품은 섭취가 가능함에도 섭취 여부를 고민하는 등의 혼란이 있었다. 여기에 유럽, 미국, 일본, 호주 등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대부분 국가 및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식량낭비 감소, 소비자 정보제공 등을 목적으로 소비기한 표시제를 운영하는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해 '소비기한' 도입 추진이 이뤄지게 됐다.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FMG 지식엔진연구소

2021 이용지만족도 푸른방송 전국 1위



# 한번에 받으니까 더 놀라운 혜택

현명한 선택  
결합 상품



지금바로! (053) 551-2000 www.gcs.co.kr